

커뮤니케이션 능력, 취업과 성공을 여는 ‘Key’

!의사소통 훈련

커뮤니케이션 능력! 그것이 역사를 선
도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
다는 뜻은 세대에 관계없이 누구와도
말이 잘 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
다. 취업은 물론이고 성공을 얻고 싶다
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
야 한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언해
야 한다. ‘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
먼저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
되도록 하라!’ 대학 졸업 후 원하는 대
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, 또는 취업이
라는 문을 통과해 세상에 진입해야 하
고, 그 다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
받아 우리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 가
장 필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
력임을 자각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
해야 한다.

탐 명문 대학들의 지원자들을 살
펴보면 총 지원자 중 고교 수석 졸
업자들이 신입생 정원수보다 많다.
또한 대학에 지원하는 고교 수석
졸업자 중에서 80% 이상이 불합격
이 되었다. 이것은 입학사정관들이
단지 학교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
라는 것을 의미한다. 학교 내신 성
적은 입학 심사의 출발점에 불과하
다. 학교 성적이나 표준고사 시험성
적 외에 지원자를 하나의 인격체로
서 즉 그들이 지닌 잠재력, 태alent,
열정, 취미 그리고 인성을 포함하여
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성적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불
행하게도 바로 아시안 학생들에게
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다. 따라서
명문대학 진학을 겨냥하고 준비할
때 더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
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종합적인
인격체로 키워나가는 것은 하루아
침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다. 긴 안
목을 가지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준
비를 시켜나가야 한다.
우리나라 고사성어에 ‘백년지대
계’라는 말이 있다. 국가와 사회발전
의 근본 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
기 때문에 ‘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
계획’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
는 뜻이다. 즉 교육은 단순히 스쳐



읽기, 말하기, 쓰기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대입 때는 물론 취업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. <뉴욕타임스>

대학 입학 때와는 다른 사회진출 스펙에 필수 대인관계·문서작성·프리젠테이션 지식 향상

지나가는 일이 아닌 것이다. 민족의
미래를 키우는 일이고 나라를 세우
는 길이다.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
라면 뭔가 다른 투철한 사명감도 있
어야 할 것 같다.
교육은 최소한 10~20년 앞을 내
다보아야 한다. 아무리 힘들고 모두
가 어려워하는 세계적인 불황이 올
지라도, 세상은 여전히 ‘쓸 만한 사
람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
없다. 이 세상에서 쓸 만한 사람. 세
상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인재로
만들기 위해서는, 특별히 자녀들이
남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
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필요
하다.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된다
는 것은 세상이 꼭 원하는 사람이
되는 것이고, 이렇듯 준비된 사람들
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간다.

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
부모님들은 공부 다음으로 자녀의
‘스펙’을 만들려고 과외활동이다. 인
턴십이다. 컴피티션 등 온갖 정보를
찾고 있다. 한국판 어느 책을 인용
하자면 20대들이 매달리는 ‘스펙 5
종 세트’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줘
야 할 한국의 기업이 원하는 ‘스펙
5종 세트’가 서로 따로 노는 상황이

벌어졌다는 것이다.
이 책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을 구
하고자 애쓰는 20대들이 생각하는
‘스펙 5종 세트’는 바로 학점, 자격
증, 토익점수, 해외연수, 인턴십 경험
이라고 한다. 어찌 보면 미국의 한인
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. 모두
들 GPA에 SAT 점수, 각종 경시대회
및 인턴십, 과외활동 만들기에 혈안
이 되어 있다. 실제로 대학에 들어
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
기 때문이다.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
도 따지고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
학원을 가거나 직장을 잡고 성공적
인 직장생활을 하며 일생을 행복하
게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다.
그러나 사회에 나가 정작 필요한
‘스펙’은 대학 입학과는 다른 것으
로 지적되고 있다. 바로 커뮤니케이
션 능력과 문서작성 능력, 프레젠테
이션 능력, 그리고 대인관계와 비즈
니스 에티켓 여기에 회사 업무와 관
련된 상식적인 지식들이다.
필자가 대입 세미나에서 빼놓지
않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
는 추천서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는
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
하다. 대학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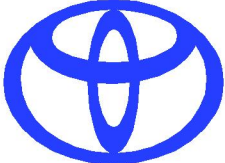
시작이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.
대학원 진학 때에도 추천서를 잘
받기 위해서는 교수와의 관계가 좋
아야 하고,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능
력이 뒷받침된 대인관계가 중요한
것이라고 생각한다. 커뮤니케이션은
의사소통 능력이다. 이것은 단지 말
만 잘하면 되는 기술이 아니다. 커
뮤니케이션은 감각을 이용한 소통
능력이기도 하다. 인간은 오관을 전
체적으로 그리고 골고루 사용하여
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물이다.
Google의 미국 본사에서 입사시
험 면접 때의 유명한 얘기가 있다.
지원자들에게 세대를 초월한 커뮤
니케이션 능력을 보기 위해 아래와
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. “여덟 살
짜리 조카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
해 설명해 보시오” 전 세계 20대들
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
의 하나인 구글은 역시 뛰어난 회사
다.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인 기업이
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세대
를 넘나들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
있어야 한다. 자기 또래끼리는 대화
가 잘 통하는데 워사람들이나 혹은
어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들
다면 돈을 벌어들이기 힘들다고 판

단한 것이다. 세대를 뛰어넘는 커뮤
니케이션 능력, 이것이 구글의 성공
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,
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세상
이 원하는 인재상이다.
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커뮤
니케이션에 필요한 writing 능력이
다. 거의 모든 대학이 뛰어난 writ
ing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좋아한
다.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, 직장에서
도 마찬가지이다.
SAT Writing 만점을 받기 위한 스
킬이 아닌 문서 작성 능력 및 프레
젠테이션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이
다. 칼리지 보드의 발표에 따르면 눈
에 띄게 좋은 SAT 점수 그룹은 AP
Writing 클래스를 들은 학생들이다.
이들의 평균 점수는 1984점을 기록
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AP 클래스
를 들은 그룹의 SAT 점수보다 높게
나타나고 있다.
말하기, 쓰기 능력 다음으로 중요
한 것은 문서작성 능력이다. 이것들
이 통틀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
문이다.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
어난 신입사원들을 보면 그들의 문
서작성 능력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
았는지 알 수 있다. 고등학교에서 공
부를 아주 잘하는 그룹에 속하는
학생들조차 때로는 아주 심플한 문
서 저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
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학교에서 배
워야 하는 학과 공부 때문에 기본
이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무시
가 되고 있다.

사회에 진출해서 하는 일들은 모
두 결국 문서작성과 연관되어 있다.
민기 어려운 현실은 문서작성에 대
해 공포증을 앓고 있는 직장인이 무
려 75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. 생
각과 아이디어가 제 아무리 뛰어나
다 할지라도 이를 한 장의 완벽한
문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능력을
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. 짧고 의
미 있는 문장을 구사하는 요령을 초
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키워주자.
대입지원서 작성도 자신을 PR하
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. 개인 브
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
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
신의 능력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
는 방법을 알고, 이를 대학에 정확
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.
역사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
나 같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
용을 누군가에게 쉽고 정확하게 그
리고 빨리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
다. 셰익스피어나 윈스턴 처칠, 그리
고 벤자민 프랭클린, 아리스토텔레
스,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도 이런 능
력이 있었다. 커뮤니케이션 능력이
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선도적인 위
치에서 대중들을 이끌었고 지금의
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.



제니 김
(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)
시니어 어드바이저
(어드미션 매스터즈)
1-866-466-2783
www.TheAdmissionMasters.com



전 세계에서
도요타를 가장 많이
파는 곳!

“와~보시면
왜! 싸게 사실수
있는지 아십니까”



**스페셜
이자**

**스페셜
리메이트**

**스페셜
리스**

**Fleet Assistant
구함.**

취업에 결격사유 없고
무경험자 환영합니다.

문의:
213.738.1234
강태백



강 태백
213.738.1234



윤 희철
213.422.5073



칸 이
951.532.4237

한국어로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

롱고도요타

3534 N. Peck Road, El Monte, CA91731
(800) 617-6518

* 오시기전 전화예약 하시기 바랍니다.